

Part 3 — Q&A (긴급 매크로 통합)

3월 3주차 Q&A (긴급 매크로) — 전쟁의 안개 속, 흔들리지 않는 4가지 투자 원칙

· 정리 2026-05-22

전쟁의 안개 속, 흔들리지 않는 4가지 투자 원칙

Q&A 3월 3주차 + 긴급 매크로 (2026-03-16). 이란 전쟁 본격화 후 통합 회차.

이란 전쟁 변동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4 가지 투자 원칙** — ① 뉴스에 휘둘리지 마라 ② 가격이 아닌 구조를 보라 ③ 전쟁은 예상외로 길어진다 ④ 게임 이론으로 분석하라.

셋인 일정 + 미국 중동 전쟁 요약표 + 1973 비교까지 — 전쟁 안갯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석 골격.

5년 구조 상승

셋인 일정 — 이라크 즉시 / 쿠웨이트 1주 / 사우디 4주. 영구 손실 시 유가 5년 구조적 상승 (+1 — 이라크 61% 붕괴, 글로벌 10.8Mbps shut-in, 2028 이전 회복 X)

전쟁 안갯속에서 인버스 치킨값 vs 거액 손실 — 변동성 큰 장세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1. 도입 — 전쟁 안갯속 4 원칙

Q&A 3월 3주차 + 긴급 매크로 (2026-03-16). 이란 전쟁 본격화 후 투자 태도 고민에 대한 강사 응답이다.

4 가지 투자 원칙 — ① 하루하루 뉴스에 휘둘리지 마라 ② 가격이 아닌 구조를 보라 ③ 전쟁은 예상외로 길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안하라 ④ 게임 이론으로 전쟁을 분석하라.

본 회차는 그 4 원칙 + 섯인 일정 + 미국 중동 전쟁 표 + 게임 이론 + 1973 비교까지 — 전쟁 안갯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석 골격을 정착시키는 회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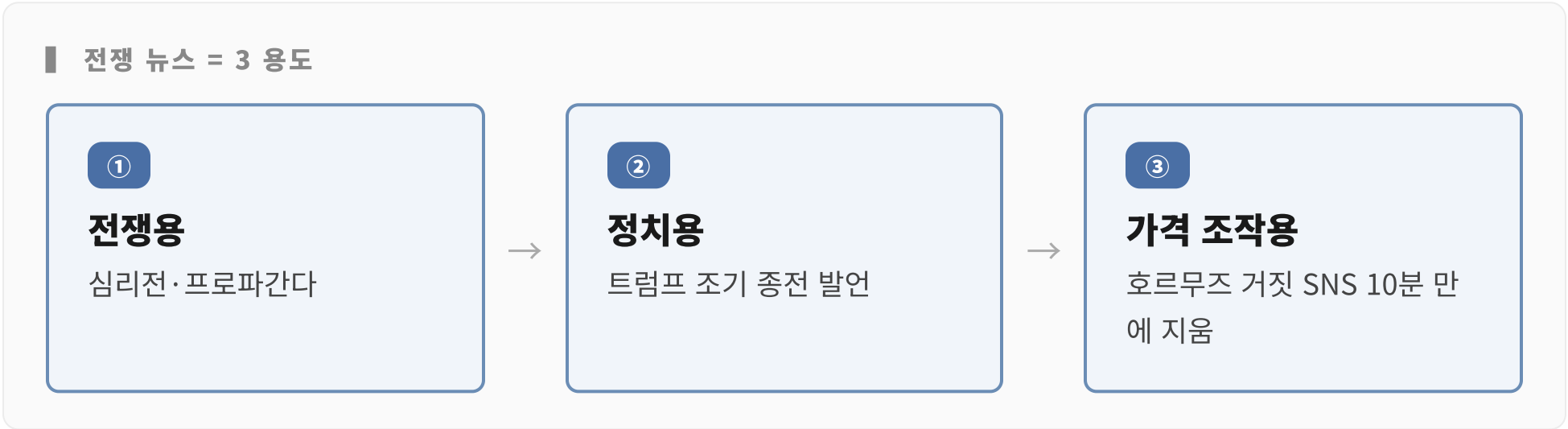
2. 제1원칙 — 뉴스에 휘둘리지 마라

전쟁 때 나오는 뉴스는 **심리전 + 프로파간다**가 숨어 있다. 트럼프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승리 선언' 발언, 이란의 '장기화 재침공 방지' 의도 — 서로 다른 뉴스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전황을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표 사례 — 최근 유가 출렁임 중 미국 한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최초로 유조선이 미 해군 호위로 통과했다'고 SNS에 올렸다 **10분 만에 지웠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장난이다.

미국 정부 통제 밖에 있는 세력이 항상 유가 상승에 베팅 중이라 이들을 죽이고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다. **뉴스는 전쟁용·정치용·가격 조작용으로 활용된다.**

강사가 본 § 에서 짚는 결론은 — 뉴스 자체를 거부하지 말되, 뉴스가 만드는 당장 반응(매수·매도)을 거부하라는 것. 본 회차 전체가 그 결의 정밀화다.



3. 러우 6개월 정보 대혼란 사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한국 전문가 99%가 서방 언론만 보고 '우크라이나 완벽한 승리'를 외쳤다.

강사 본인은 6개월 동안 누가 이기는지 말하지 않았다 — 미국 언론·타스 통신·인도 언론에 따라 전황이 완전 달랐기 때문. 6개월 뒤 '러시아 쪽에 좀 더 유리'라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악플 수백 개.

전황을 알려면 최소 수개월, 1·2차 대전급은 1~2년 걸린다. **이번 이란 전쟁은 두 달 석 달은 지나야 안다.** 본 회차 강의 시점(2026-03-16)에서 2개월 후의 시점은 5월 중순 — 그때까지도 강의의 단정적 예측은 어렵다는 게 강사 결.

강사 본인이 6개월 동안 침묵한 사실 자체가 본 §의 가장 강한 사례다. 한국 전문가 99%가 서방 언론만 보고 단정적 예측을 했다는 점은, 단정의 빠른 결과가 늘 정확하지 않다는 메타 메시지를 준다.

강의 시점(2026-03-16)에서 2개월 뒤 시점인 2026-05 중순 — 이란 전쟁은 ceasefire 깨졌다 다시 escalation 반복하며 여전히 단정 어려운 상태. 강사 명제 '두 달 석 달은 지나야 안다'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상황이다.

강사가 본 §에서 가르치는 메시지는 — 전쟁 같은 거대한 사건은 정보가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출처에서 검증돼야 한다는 것. 한 출처(특히 서방 언론 한 곳)만 보면 99% 잘못된 단정으로 흘러간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교훈이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 매우 큼.

4. 변동성 = 동전 던지기 (인버스 치킨값 vs 거액)

뉴스에 사고팔 때 가장 큰 문제 — 늦은 대응. 화재 나오면 다음 날 6% 갭상승 출발. 여기 뛰어들면 전날보다 6% 비싸게 산 셈. 정반대 뉴스가 이틀 뒤 나오면 급변.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동전 던지기**.

트럼프가 '조기 종전' 떠들었더니 코스피 6% 갭상승 시작. 그 고점에서 물리면 종전이 거짓 또는 헛된 자신감으로 드러날 때 손실. **변동성 큰 장세에서는 사고파는 것보다 포트폴리오 유지가 승리의 길**.

SNS에서 '선물 하락 베팅 / 인버스 사서 치킨값 벌었다'는 글들 — **200~300만 원이면 가능하지만, 2,000~3,000만 원이나 2~3억 투자하면 공포가 뇌를 지배해 절대 못 탄다**. 강사 결론 — 치킨값 OK, 거액 X.

강사가 본 § 에서 짚는 강력한 결론 — 거액 인버스·선물은 절대 피해야 함. 200~300만 원 치킨값은 게임 이론적으로도 합리적 작은 베팅이지만, 거액은 공포가 뇌를 지배해 사실상 동전 던지기로 전략. 변동성 큰 장세의 가장 위험한 자리가 바로 거액 단기 베팅이다.

'포트폴리오 유지'가 단순한 보수적 조언이 아니라, 변동성 환경에서 수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전략임이 1·2원칙의 결론이다.

강사의 일관된 입장 — 변동성 큰 장세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다. 매수도 매도도 멈추고 기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두는 것이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승률을 보장한다는 게 경제로드맵 시리즈 누적 결의 핵심이다.

5. 제2원칙 — 가격이 아닌 구조를 보라

전쟁은 거대한 블랙박스. 강사 본인도 이란 전쟁 향방을 모른다고 인정. **러일 전쟁** — 서방에서 100% 러시아 승리를 예측했지만 일본이 이겼다.

월가의 전문가도 전쟁의 진짜 상황은 모른다. 한 유튜버가 '원유 선물 4월 100달러, 7월 70달러, 1년 뒤 60달러니까 월가는 전쟁 곧 끝난다에 베팅했고 월가는 항상 맞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상 말도 안 됨. **월가도 평상시에 맞지만 전쟁 때는 아님.**

미국-이란 전쟁 핵심 구조 2 가지 — ①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로 유조선이 움직이기 시작했나? ② 셋인(Shut-in) 영구 손실 발생 여부? 두 구조가 가격보다 더 진실에 가깝다.

유가는 트럼프 말 한마디에 출렁인다. 러우 전쟁 때 바이든도 '우크라이나 대승' 주장 — 바이든도 진실보다 유리한 걸 말했는데, 트럼프는 더더욱 자기 유리한 것만 말한다. 그래서 가격에 매달리지 말고 핵심 구조 두 가지(유조선 통과 + 셋인)에 집중하는 게 본 § 결론.

다음 § 셋인 일정에서 그 두 구조 중 후자(셋인 영구 손실)를 정확 정량 일정과 함께 풀이한다.

월가의 분석이 평상시에 맞는 이유 — 평상시 시장은 가격이 정보를 흡수하기에 효율적이다. 전쟁 같은 거대 외생 충격이 발생하면 가격이 노이즈와 진실을 구분하지 못해 평소의 효율성이 사라진다. 그래서 강사가 '월가도 전쟁 때는 아님'이라 단정하는 게 핵심 메시지다.

6. 첫인 일정 — 영구 손실 + 5년 구조 상승

첫인 본질 — 일부 유튜버 오판 풀이: '산유량 수도꼭지 잠갔다가 풀면 펑펑'은 틀림. 원유는 수돗물이 아님. 밸브 잠그면 암반 안 틈새의 파라핀·아스팔텐 같은 물질이 굳어 광물대가 막혀 **영구적 생산량 손실** 발생.

잠그는 일정 — **이라크** 이미 잠금 (지난 주, 박살난 나라라 원유 탱크 거의 없음) / **쿠웨이트** 다음 주 (감산 선언 후) / **사우디** 4주 뒤 (파이프라인 1,200km로 홍해·오만 동쪽 빼냄, 60%).

3월 23일 주가 영구 손실 첫 주. **감산이 아니라 밸브 잠금 = 유가 구조적 5년 상승**. 트럼프 승리 선언이 아니라 **유조선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점이 중요**. 이란이 사우디 파이프라인을 테러할 가능성도 배제 못 함.

강의 후 2개월 진행 (+1) — **이라크 61% 붕괴 (4.2 → 1.6Mbps)** 강의 직후 진행. 사우디 5월 8일 storage 가득. 글로벌 shut-in 4월 평균 10.5Mbps → 5월 peak 10.8Mbps. **완전 회복은 2028 이전 X, 일부 well 영구 손상 가능**. 강사 '5년 구조 상승' 명제 정확 검증.

■ 첫인 일정 + 영구 손실

국가	시점	이유
이라크	이미 잠금 (지난 주)	박살난 나라 → 탱크 거의 없음
쿠웨이트	다음 주	감산 선언 후
사우디	4주 뒤	파이프라인 1,200km 60% 우회
영구 손실	—	유가 5년 구조 상승 (강사)

†1 이라크 61% 붕괴 + 글로벌 10.5~10.8Mbps + 2028 이전 회복 X [cnbc.com](#)

7. 제3원칙 — 전쟁 길어질 리스크

전쟁은 항상 예상외로 길어진다. 누군가 **오판하니까 전쟁이 벌어진다**. 처음 시작한 쪽은 단기·압승 기대. 처음부터 장기전을 기획한 경우는 제로.

1차 세계대전 사례 (1914-07-28 발발) — 독일 초반 오판: '프랑스 박살, 6주 충분'. 예상외 길어지자 가스라이팅 — '크리스마스 전 끝낸다'. 실제: **4년 3개월 / 1,700만 명 사망**.

이게 강사가 짚는 핵심 — 모든 전쟁은 시작 단계에서 단기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길어진다. 1차 대전이 가장 극단적 사례지만, 다음 § 미국 중동 전쟁 표가 같은 패턴이 미국 본토에서 6번 반복됐음을 보여준다.

강사가 본 § 에서 짚는 강력한 결론 — 모든 전쟁은 시작 단계에서 단기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길어진다. 1차 대전이 가장 극단적 사례지만, 다음 § 미국 중동 전쟁 표가 같은 패턴이 미국 본토에서 6번 반복됐음을 보여준다.

이게 '오판하니까 전쟁 벌어진다' 명제의 정확한 메커니즘 — 처음 시작한 쪽의 단기 압승 가정 자체가 오판이라는 점이 1차 대전 1,700만 사망의 가장 비싼 교훈이다.

강사가 본 § 에서 짚는 한국 투자자 시각 —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라 무조건 단기 종전을 응원'한다는 단정은 위험. 친한파 시각으로도 단기 종전 시나리오는 게임 이론적으로 비합리이기에 그 가정 위에 포트폴리오를 짜면 안 된다는 것이 본 § 결론이다.

이게 본 § 마지막 핵심 메시지 — 전쟁 단기 종료 가정 위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한 베팅. 강사가 친한파 입장에서든 그런 단정은 피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게임 이론적으로 단기 종전이 비합리적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8. 미국 중동 전쟁 표 + 시리아 2026-04 철수

강사 요약표 — 걸프전 1991 '이라크 금방 제압' → **42일** (단기, 다국적군 + 지상군). 아프간 2001 '탈레반 금방 붕괴' → **20년** (철수). 이라크 2003 '6주 작전' → **8년** (철수, 사실상 진행). 리비아 2011 '카다피 금방 끝' → 내전 10년+ (수렁). 시리아 2014 'ISIS 금방 격파' → 10년째 (강의 시점). 미-이란 2026 '2주 작전' → ?

외부 검증 (+2) — **시리아 2026-04 미군 최종 철수** (12년 만에 종결, 강의 시점 후 변화 추가). **미국 9·11 이후 중동 전쟁 비용 \$5.8T**, 사망 940K (직접). 강사 표 정확 검증.

지상군 없으면 전쟁은 무한정 길어진다 — 아무리 군사 기술 발달해도. 강사 입장 — 친미·친중 아닌 **친한파**. 한국 미래를 위해 미국이 빨리 깔끔하게 이기길 응원. 그러나 '패권 국가니까 무조건 마음대로 끝낼 수 있다' 단정은 위험하다.

■ 미국 중동 전쟁 — 예측 vs 실제

전쟁	미국 예측	실제
걸프전 1991	'금방 제압'	42일 (단기)
아프간 2001	'금방 붕괴'	20년
이라크 2003	'6주 작전'	8년
리비아 2011	'금방 끝'	10년+
시리아 2014	'금방 격파'	12년 (+ 2 2026-04 철수)

9. 제4원칙 — 게임 이론 (단발 vs 반복)

강사는 교과서 경제학(선형·결정론)을 싫어하나 **게임 이론은 꼭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정치·전쟁 문제에 해안을 준다.

단발 게임 — 전쟁이 영원히 다시 안 일어난다 가정. 강대국이 마음대로 종전 선언하면 약소국은 합리적으로 종전 동의. 그게 합리적 선택.

반복 게임 — 미국·이란 관계가 이쪽. 미국이 일방 종전 → 약한 나라로 낙인 → **재침공 반복**. 다음 침공은 미국이 호르무즈 봉쇄 막을 방법까지 철저히 준비 (AI·기술 혁신 동원). 트럼프 재침공 좋은 때 — **11월 중간선거 전 또는 대선 전**. 대선 전 압승 = 공화당 다음 대선 유리.

이란 입장 — 당장 고통 때문에 재침공 위험성을 무시하고 미국 손을 잡을 것이냐? 그건 생존 전략 아님. **이란이 버티는 건 감정이 아니라 수학**. 약소국 = 바보 아님. 게임 이론을 충분히 판단할 능력 있음.

이게 강사가 짚는 게임 이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단발 게임은 모두에게 합리적 해가 있지만, 반복 게임은 약소국이 종전 동의 자체가 비합리적 선택이 된다. 미국이 이를 모를 리 없고, 이란도 알기에 — 양쪽 모두 게임 이론적으로 합리적 행동을 하는 상태에서 전쟁이 장기화로 흐른다는 게 본 § 결론이다.

다음 § 에서 그 게임 이론 시각이 실제 Khamenei 암살 + Mojtaba 임명 흐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본다.

강사가 인용한 '이란이 버티는 건 감정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표현이 본 § 의 가장 핵심적 메시지. 약소국이 합리적으로 장기화로 끌고 가는 흐름이 게임 이론적으로 정확하다는 점이 본 회차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다.

강사 본인이 게임 이론을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 — 정치·전쟁 같은 영역에 해안을 준다. 교과서 경제학(선형·결정론)으로는 풀 수 없는 영역이 게임 이론으로 풀린다.

10. 약소국 = 수학 + Khamenei 암살 후속

외부 보강 (+3) — Operation Epic Fury 2026-02-28: Khamenei 암살.

Mojtaba 부상 가능성 (assignment 후 영상 미등장) + IRGC 압력 (Assembly 8명 반대에도 임명). 학술 합의 — Iran의 asymmetric endurance 전략은 정확 게임 이론적 합리.

강사 인용 '수학' 명제 정확 검증. Mojtaba는 감정적 복수 결정보다 **이란이 장기화로 끌고 갈 가능성**이 게임 이론적으로 더 합리. 약소국이 바보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 — 이게 본 § 의 핵심 메시지.

이 학술 합의가 강사 명제 ('이란이 버티는 건 수학')의 정확 검증이다. 감정이 아니라 수학적 합리 — 약소국이 바보가 아니라 게임 이론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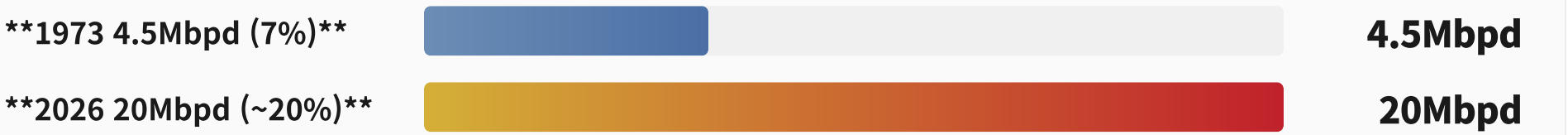
11. 1973 vs 2026 + 종전 신호

1973 아랍 오일 엠바고 — 중동이 유가로 오일 쇼크로 서방에 타격 → 중동 발언권 폭발. 이란이 이를 이용 가능성 배제 못 함.

정량 비교 († 4) — **1973 4.5Mbpd (글로벌 공급 7%) vs 2026 호르무즈 차단 20Mbpd (3배 큰 규모, 글로벌 ~20%)**. 1973 가장 중요한 교훈 — **oil 가격이 pre-embargo level로 돌아간 적 없음**. 강사 '장기 구조적 상승' 명제 정확.

종전 신호 — 말이 아닌 행동. 게임 이론을 감안한 진짜 종전 신호 — 트럼프 발언 X (말은 노이즈) / 유조선이 진짜 호르무즈 통과 O / 이란·아랍 회동 (화상 회의라도) O / 진짜 화해 제스처 행동 O. 행동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트럼프 발언이나 노이즈 기사로 판단하면 안 된다.

1973 vs 2026 — 3배 큰 규모



oil 가격 pre-embargo 회복 X (강사 5년 명제 정확)

† 4 1973 (4.5Mbpd, 7%) vs 2026 (20Mbpd, 20%) — 3배 큰 규모 aljazeera.com

12. 마무리 — 포트폴리오 + 원칙 끝까지

전쟁 때일수록 투자의 기본 원칙이 중요. 영국·나폴레옹 전쟁 때도 국채 가격과 금 가격이 전황에 따라 폭등·폭락 반복.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뉴스에 사고팔지 말고 적정 포트폴리오 + 처음 세운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단단한 마음이 핵심.

부자가 되려면 탐욕 필요 — **남들이 모두 공포 느낄 때 탐욕을 느껴야 돈을 번다.** 단 전쟁은 탐욕→공포→탐욕→공포 반복이라 끝을 모름. 그래서 **공격뿐 아니라 지키는 것도 중요한 투자 원칙**이다.

포트폴리오 + 원칙 끝까지

Q&A 3월 3주차 + 긴급 매크로. 4 원칙 + 섯인 일정 + 미국 중동 전쟁 표 + 게임 이론 + 1973 비교까지 전쟁 안갯속 흔들리지 않는 분석 골격.

변동성 클 때 뉴스에 사고팔지 말고 걱정 포트폴리오 + 처음 세운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단단한 마음 — 강사 결론.

공격뿐 아니라 지키는 것도 중요한 투자 원칙. 다음 회차들에서 전쟁 진행과 함께 유가·주가·채권·금 영향을 긴급 매크로 / Q&A로 계속 정밀화할 예정.

변동성 클 때 뉴스에 사고팔지 말고 걱정 포트폴리오 + 처음 세운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단단한 마음.

다음 Q&A·긴급 매크로
전쟁 진행 + 유가·주가·채권·금 영향 정밀화
본 회차의 4 원칙·섯인 일정·게임 이론 골격 위에서, 다음 회차들이 시점별로 정밀화된다.

본 자료는 박종훈의 지식한방 Q&A 3월 3주차 (2026-03-16)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라 강의의 핵심 논지와 관련 지표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요약입니다. † N 외부 자료는 강의 메시지에 새로운 시각을 추가할 뿐 권고 항목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지표 출처: cncb.com · en.wikipedia.org · aljazeera.com · blogs.timesofisrael.com · americanthinker.com · aljazeera.com